

월간 증 현

'79 11월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의 특권이요 의무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고, 또한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좇아 범사에 감사해야 하겠건만, 왜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할 수 없게 하는가? 우리는 하박국선지자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된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나라가 간악하고 패역하며, 겁탈과 강포로 가득차고, 백성들 가운데서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며,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 부패상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유대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는 하박국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박국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즉 “그 힘으로 자기의신을 삼는 자”를 일으켜 유대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깨훈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응답하시기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보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전하는 하나님 앞에 잠잠할 것을 명하셨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선지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대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찬양하였다. 비록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진노중에 고난을 당하고 있을찌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박국을 환난으로 인하여 그의 입술과 목이 떨리고 그의 뼈가 썩어 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찌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 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합 3:17-18)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하고, 기뻐하였다.

우리는 하박국선지자의 신앙자세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된다. 하박국은 유대의 구원을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유대를 심판하시겠다고 응답을 하셨다. 그러나 하박국선지자는 자기의 소원과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행사를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내 계획과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 내게 유익이 되고 내 생활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는 성도들의 감사의 전부는 아니다. 하박국선지자처럼 비록 내 자신은 잠시 환난과 고통중에 거할찌라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 성도의 자세이리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리라. (*)

(주 간)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충현교회 3대 목표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제 7 권 71호 월간 충현

— 11월호 차례 —

권 두 언	주 간 · 4
이달의말씀 감사하는 성도	김창민 · 4
지 상 특강 내일의 중국대륙 선교를 위하여	홍종만 · 6

— 회 특집 / 감사절을 맞는 마음 회 —

· 감사절은 어떤 날인가	정상우 · 11
· 말세에 세워 준 은혜	이인희 · 14
· 존재 자체가 감사	김승중 · 14
· 우리 나오는 감사를	유미화 · 15
· 주님의 소원대로	박명련 · 16

주간의 만나 시편 64편	김창민 · 17
편집실칼럼 예수 광고	이형수 · 18
찬송가감상 저 밭에 농부 나가	김하진 · 18
책 소 개 간추린 교회사	성주진 · 19
도 서 정 보 10월에 들어 온 도서	도서실 · 19
기독교윤리 기독교의 도덕적 이상	김하진 · 20
중 국 선 교 중국대륙 선교를 위한 준비	김영휘 · 22
선교 월 보 해외 선교지 소식	해외복음선교회 · 26
구 역 소 식 10월중 새 교우 · 결혼 · 별세자	구역권찰회 · 28
주 교 소 식	교육위원회 · 30
교 회 소 식	편집실 · 32
11 월 행 사	편집실 · 34
편 집 후 기	편집실 · 34
답 한 다 주일성수의 올바른 태도	김재창 · 35
실로암 못가에서	 · 36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

〈살전 5 : 16~22〉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내용은 올바른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참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힘있는 일꾼으로 일하면서 여생에 복을 받아 누립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백성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효자, 효녀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생활에 대하여 3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괴롭고 기쁜 일이 많지를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불원에 가리니

비록 세상이 괴롭지만 얼마 있다가 천국 갈 생각 하나까 기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으로 기쁨을 삼을 줄 알아야 하나님앞에 효자 신자입니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들은 몸도 마음도 결심도 약합니다. 생각이 어리석습니다. 또 우리들은 죄악에 때 묻은 걸레 조각처럼 냄새를 피웁니다. 사는 날은 짧습니다. 원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해야 할 책임이 또한 많습니다. 이것 저것을 따져 보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짧은 인생, 뜻 있는 인생을 사는 성공자가 되게 해 달라고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세째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며 은혜 받기를 원

합니다.

I. 어떤 사람이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첫째 겸손한 사람이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은 감사를 드리고 교만하고 미련한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아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가 늘 샘 솟듯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은 쓸데없는 원망만 툭툭 튀어 올라오는 미련쟁이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마음이 넓은 사람이 감사를 합니다.

마음이 웅축한 사람은 원망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한번 바꿔 생각할 줄 압니다. 자기의 욕심만 생각해보니 원망이 터집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의 입에서 감사의 음성이 나옵니다.

셋째 책임에 충성하는 사람이 감사를 합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죄만 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일을 충성되이 할 수 있는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선전만 하고 외식만 하는 사람에게서는 원망밖에 없습니다.

II. 누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식은 부모님에게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낳으시고, 육신을 먹이시고 입혀시고, 공부를 시키어 인격자로 키워 주시고 날마다 복 받기를 원하여 축복해 주시는 부모님 앞에 고마울 줄 아는 자식이라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들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영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주의 종들의 은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만가지 은혜를 받았지만 둘로 나누어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일반적 은혜입니다.

이 일반적 은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분간없이 같이 받는 은혜입니다. 금년에도 풍년을 주셨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 금년에도 우리나라의 산업이 계속하여 발전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일반 은혜입니다. 둘째는 특수 은혜를 받았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택함을 받은 것이 특별한 은혜이고 총현교회가 날이 갈수록 부흥되는 것이 특별한 은혜이고, 세계의 선교사업이 날로 확장가는 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세계 선교사업의 길이 열리고 홍콩을 통해서 중공에 복음이 들어가고 머지 않아 중국 본토를 통해서 평양에 복음이 들어갈 날이 얼마 안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복들이 다 특별 은혜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Ⅲ. 어떻게 감사합니까.

첫째 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입에서 늘 찬양이 그치지 않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먼저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입으로 인사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 회개하게 됩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입으로 인사가 있고 입에 인사가 있으면 자기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눈물이 있습니다. “아, 나는 과거에 효자 노릇을 못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성도의 생활을 잘못 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는 곧 감사입니다.

세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제는 친구 따라 가지 않고 기본따라 가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순종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네째 말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기가 맡은 일에 뼈가 아프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다섯째 감사는 보답하는 것입니다.

신세를 졌으면 보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억만금의 신세를 지고도 모른척 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보답을 합니다. 시간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생명을 바칩니다.

보답하는 현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Ⅳ. 이처럼 감사를 바로 하면 어떤 복을 받고 감사를 바로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바로 하는 사람은 먼저 마음 그릇이 넓은 인격자가 됩니다. 감사를 열면하면 열면한 것 만큼 마음 그릇이 넓은 인격자가 되고 감사를 천번하면 천번한 것 만큼 마음의 그릇이 넓은 인격자가 됩니다. 그러나 원망을 하면 원망할 적마다 마음이 좁아져서 웅출해 집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넓은 인격이 되고 넓은 마음에 하나님은 성령님의 은혜로 명철한 지혜로 넘치는 평안으로 주단 말입니다.

또한 감사를 바로 하는 사람은 맡은 책임에 충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감사는 충성을 열매로 맺읍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충성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맡은 일에 뼈가 아프기까지 충성함으로 농사를 지어도 성공하고 무슨 일을 해도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사람은 맡은 일에 충성이 없기 때문에 반역만 합니다. 반역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신세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원수로 갚는 자식,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마귀의 줄도, 하나님이 버리시고 사람이 버릴 때에 저 혼자 잘났다고 떠들어 보았자 발 물일 곳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나 자신이 천국에 들어 갈 밑알이 되었는지 검토해 봅시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간판만 가졌는지 예수 믿는 사람의 내용이 충실한지, 자신을 검토해 보면서 우리는 이미 받은 바 은혜를 감사히 입으로 찬송드리고 지난 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내 욕심 따라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이제부터는 맡은 바 책임에 충성하기로 결심하면서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시다.

올바로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넓고 넓은 인격자가 되고 넓어진 마음에 하나님이 지혜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평안으로, 물질로 채워 주실 때에 여러분이 영육간에 부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의 중국대륙 선교를 위한 젊은 기독교인들의 준비

홍 종 만 목사

(홍콩선교사)

오늘은 특별히 중·고등·대학·청년부의 젊은이들과 함께 자리를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받고 있는 홍콩한인교회에도 중·고등부가 있는데 5~7명 정도 됩니다. 오늘 이처럼 많은 젊은이를 대하게 되니 매우 기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 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신앙적인 일은 이 세상의 일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은 지혜가 많고 학식이 풍부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수단이 좋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과는 다릅니다. 돈·권력·지식 가지고 하는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선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돈이 있으니까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가능성 있는 일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돈·지식·무력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쳐 들어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성 정복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착수했고 성공했습니다. 다윗의 골리앗과의 싸움이 승산있는 싸움입니까. 전혀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서 했고 또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전혀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선교는 가능성여부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해야 해

선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자, 지금은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만두자, 이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하는 것이요, 하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집을 짓고, 사업을 하고 있는 일은 가능성을 살펴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대륙에 대하여 선교를 하고, 북한에 대하여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모든 정세나 여건을 돌이켜 볼 때 불가능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눈앞에 그것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대륙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선교라는 말을 사용할 때 2 가지면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에 대한 선교와 둘째는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에 대한 선교로 나누어 생각하기로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중국에는 한국인이 300만명 이상 살고 있으리라고 이야기 합니다.

한국교회의 중국선교라는 말은 중국인·한국인 선교의 양면에서

중국은 1949년에 완전히 공산당으로 넘어 가서 모

〈「중국대륙 선교의 밤」에서
보고하는 홍종만 목사〉



택동이 통치하다가 모택동이 죽음으로 이제부터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모택동 치하에서도 선교는 계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모택동 치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홍콩에 머물러서 계속 선교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 다. 그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기도운동이었습니다. 기도운동을 열심히 전개했습니다. 인쇄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도운동을 펼쳤습니 다.

또한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도했지만 중국내에서 라디오를 듣지 못하게 하고 또한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세째로는 문서전도입니다. 성경을 들여보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것도 매우 어렵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성경, 전도지, 종교서적들을 들여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 다. 이것이 발전해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공개적으로 선교 활동은 못하지만 공식교회에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숨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찾아서 방문해서 전도를 합니다.

중국의 선교방법으로는 기도·라디오·성경보내기 등으로

이것이 현재의 선교하는 방법인데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서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둘째는 방송하는 일에 협력을 해야 합니다. 국동방

송을 통한 김목사님의 방송, 또한 홍콩에서도 방송하고, 마카오에서도 방송하는 일들에 협력해야겠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내는 일들에 협조해야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단계는 이와같은 일들을 효과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겠습니다.

중국에 관한 정보수집이 선행되어야 선교가 가능해

그리고 이런 일들을 보다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중국의 사정을 잘 파악하는 일입니다. 중국의 정세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렵지만 홍콩에서는 쉽습니 다. 중국대륙에서 발행되는 신문 잡지 모든 책들이 홍콩에 들어 옵니 다. 그것을 수집해서 정리, 분류하여 정보화합니다. 또한 홍콩에는 중국대륙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만나 중국의 소식을 듣습니 다. 중국은 매우 광대한 나라이기에 사정이 도시마다, 지방마다 다 다릅니 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하고 정리하여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 홍콩에 있는 선교부에서 직접 중국으로 들어가서 믿는 사람도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납니 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는 많은 돈이 듭니 다. 이 일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직접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도와 줄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도와 주어야 합니다. 다 같은 목적으

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선에 나서 뛰지는 못한다 해도 측면에서 중국대륙 선교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어 주고, 기도해 주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다 해도 오늘날 우리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우리 한국교회가 중국선교에 큰 힘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가치 한국교회는 장기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변천되어 가는 중국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교회 자체에서 중국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중국선교에 관한 연구활동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앞장설 수 없기 때문에 중국사람과 협력하고 그 뒤에 하지만 앞으로 길이 열릴 경우를 대비해서 깊이 연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선교연구기관을 설치하고 일을 착수해야 합니다. 연구하는 사람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장기계획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에 열심을 보여 해외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것은 좋은데 오래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홍콩에 있는 미국 선교사들은 2대·3대째 선교사로 와서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깊은 연구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너무나도 큰 나라이고 복잡한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또 장기계획 중에 하나로 선교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선교사는 2가지로 분류해서 양성해야 합니다.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를 전문적인 선교사라고 합니다. 또 한편은 자기가 전공한 분야의 직업을 가지고 선교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로서 일본에 가서 선교하시는 유병세집사님 같은 분이죠. 이런 두가지 선교사가 다 필요한데 이런 선교사를 양성하려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서구에서는 선교사 1인을 양성하는데 수년에 걸친 훈련기간을 거칩니다. 예를 들면 어학훈련 3년, 신학훈련, 전지훈련 등으로 세분하여 장기간에 걸쳐 훈련을 시킵니다. 이 선교사 훈련은 장기 계획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특히 직업을 가지고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는 매우 필요합니다. 동남아시아의 선교의 문은 자꾸 막히는 편입니다. 그것은 동남아 각국의 정치·경제·종교·사회적인 이유로 각국이 선교사 입국을 금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동남아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곳은 몇 곳이 안됩니다. 이런 곳에 진출하는 방법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들었는데 마카오에서 한국의사를 한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마카오 같은 곳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목사로서는 못가지만 의사로서는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공도 선교사는 받지 않고 앞으로도 선교사가 들어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

당회장 김창인목사 귀국 북한선교회 지부 조직도

당회장 김창인목사는 해외 선교지 시찰 및 북한 선교를 위한 해외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8월20일 남미로 출국한 이래 2개월의 여정을 마치고 지난 10월 25일 무사히 귀국했다.

이번 여행의 특징은 남·북미의 본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교회를 중점적으로 방문해서 집회를 가진 것이다. 이번 여행을 통해 북한선교의 가능성과 해외 교우들의 참여등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국내 교인들이 북한선교를 위한 관심과 참여, 기도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북한 선교회의 총무인 백인빈장로와 함께 동행한 이번 여행은 미국 뉴욕의 빌립보한인교회(이종표목사)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앙교회(백성룡목사), 파라과이 아순손교회(김승용목사),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연합집회, 캐나다 토론토 중앙교회(정관일 목사), 캐나다 한인



〈어느 집회에서 김창인 목사〉

교회(천성덕목사), 시카고 미현교회, 로스엔젤레스 빌라델피아한인교회(조천일목사) 등에서 집회를 가져 총 6만 5천 달러의 현금이 나왔다.

또한 상파울로에서는 이석호목사를 지부장으로 하는 북한선교 지부를 조직함으로써 북한선교회 해외 지부는 파라과이, 뉴욕에 이어 3개로 늘어났다.

러나 직업을 가진 기술자로서 전문가로서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나 일본의 기술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영어선생이 많이 들어갑니다. 동남아 지역도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앞으로 동남아 선교를 위하여 특히 중공선교를 위하여서는 신학을 전공하고 선교의 사명을 가진 기술자, 학자, 간호원 등을 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것을 준비해야 하고 한국교회가 양성해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희생해야 하고 경제적

으로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당한 훈련과 각오가 아니면 안됩니다.

지금까지 중국인들을 전도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중국내에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선교에 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중공에는 300만 이상이나 되는 한국인들이 있는데 지금 그들은 신앙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본국에서 그들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 도와줄 것을 매우 열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성경도 보내 주고 주석, 설교집도 보내 주고 왔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

* 인터뷰 * 홍콩선교사/홍종만 목사

시급한 중공선교

홍콩을 통한 중공선교의 방향을 한국 교계에 보고하고 중공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열을 바탕으로 앞으로 중공선교의 구체적 방안을 계획하기 위하여 지난 10월29일 잠시 귀국한 홍종만 목사는 짧은 일정속에서도 바쁘게 보내고 있었다. 주로 중공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면에서 관심있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11월 1~3일 까지 「중국대륙선교의 밤」이란 제목으로 본 교회당에서 중공의 선교전망과 변천상황을 말씀하시는 시간을 가졌고 그외에도 각부 주교에서 특강, 또한 각 교계 신문사와의 대담, 부산지방 집회인도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홍콩을 통해 중국선교의 문이 계속 넓어져 가는데 이런 때를 놓치지 말고 동남아 및 중공선교에 한국교회가 최선을 다 할 것」을 역설하시며 현재 중공의 교회들은 정부의 인정하에 하나 둘 문을 열고 있다는 고무적인 사실을 알려 주기도 했다. 또한 이 중공 선교를 위해 「홍콩에는 중공에 대한 정보자료들이 영문과 한문으로 많이 인쇄 보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한국에서 중공 선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한글판으로 정기간행물로 발간」할 것 등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현재 중공에 있는 한인교포는 만주 전역에 교포가 2~300만명이 있는데 심양에 200여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그곳에는 홍콩을 거쳐서 송금이 가능하며 성경도 9월 이후에는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지난 1976년 9월에 홍콩선교사로 출국하여 수고하여 온 홍종만 목사는 현재 홍콩한인연합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이 한인연합교회는 현재 장년 130명 어린이 50여명이 출석하고 있고 이교회 외에도 현지주민선교, 한일학교교장 등으로 그 지역사회에서도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현지 주민 6명을 파송하고 있다.

홍종만 목사는 금번 귀국에서 중공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마카오에 개척교회 설립, 중공교회 성도와 만주의 교포들에게 성경 보내기, 중공선교 정보를 담은 정기 간행물 발간, 내년도 중공선교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의 많이 접근된 성과를 올렸다.

이제 홍콩한인교회는 우리 교회가 중공선교를 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다리가 되고 있다. 이번 홍종만 목사 귀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공선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되었고 한 걸음 더 전진하여 중공선교를 보게 되었다.

중공선교에 대한 한국교회 및 교인들의 새로운 인식과 사명감을 심어 주고 홍종만 목사는 지난 11월 8일 임지인 홍콩으로 떠나셨다.

제입니다. 지금 만주 근처 봉천에서 200 여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걸림성이 그 근처에 있는 한국인들의 신앙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대책을 세워야 했는데 편지왕래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국, 일본, 홍콩 등에서 편지왕래를 합니다. 그들이 지금 제일 요구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홍콩에서는 두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중공에 들어가는 사람편에 보내는 것이고 다른 한 방법은 우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홍콩에서는 우편, 전화가 다 가능합니다. 이 정도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중공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국대륙에 있는 한국인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북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선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심정 속에 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도 중국대륙이 북음화되면 북한이 지금은 비록 꽁꽁 얼어 붙은 것 같지만 반드시 녹을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또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강한 북음의 물결이 일어나면 그들을 통해서 이북에도 북음이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와같은 것을 생각할 때 중국대륙의 선교는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국가,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중국대륙의 문이 열린 이 일이 언제나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신 것인데 이것을 잘 포착하여 힘을 기울여야 효과가 나고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닫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공이 자기 나라를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데는 서구의 기술과 돈을 이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유세계에 문을 열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여기에 별 도움이 없다고 판단되면 문은 닫히고 맙니다.

또한 지금 중공에서는 많은 젊은이를 서방세계에 유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대책도 중공선교기관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에게 북음을 넣어 주는 겁니다. 그들은 장차 중국의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중공으로 들어가서 지도자가 된다면 자연히 중국의 종교정책, 기독교는 좀 더 넓게 전파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기회에 이바지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중공에 북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습니다. 이 하나님



〈최근에 문을 연 상해의 어느교회 예배모습〉

의 계획에 우리는 응답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금 중공의 지하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하교회에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처지에 맞게끔 인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북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은 반대를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를 당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꼭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맙니다.

동남아 선교의 힘을 축적해 주신 하나님, 중공선교에도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없어졌지만 참 신령한 교회는 살아 있어 전부 땅속으로 들어 갔습니다. 때가 되면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이번에 중공의 경우가 너무나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정해 놓은 백성은 살아서 땅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이처럼 38선으로 나누어진 것도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개재되어 있습니다. 6·25동란과 8·15해방을 통해서 이북에 있는 사람이 많이 남쪽으로 내려 왔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북쪽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평양, 신의주, 선천 이곳에서 부터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8·15, 6·25 이후 잠자던 남쪽의 교회가 이북에서 부터 내려온 교인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크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남아를 선교지로 삼고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길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능합니다. 부끄러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중공선교에 대해 그동안 너무 무관심해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 눈을 떠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신 기회를 잘 잡아 단기·장기계획을 세워 주님께서 이 시대에 맡겨준 우리의 사명에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

감사절은 어떤 날인가



정 상 우 목사

〈부목사·교육위원회위원장〉

금년도에도 평안한 중에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크신 은혜주심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유래에 대하여 흔히 1623년 9월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지킨 추수감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이 청교도들이 지킨 추수감사절이나 1789년에 워싱턴 대통령에 의하여 11월 26일을 정식으로 미국의 국경일로 지킬 것을 선포한 일은 오늘의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삼대 절기 중의 초막절에 그 유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년에 세번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너는 매년 삼차 내게 절기를 지킬찌니라”(출 23:14) 첫째는 유월절인데 이는 애굽에서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이며 (신 16:1-8) 둘째는 오순절인데 이는 십계명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과 한 해의 첫 곡식인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이며 세째는 초막절인데, 이 절기는 가을에 거두어 들인 포도와 무화과 추수를 감사하며 또한 출애굽하여 가나안땅에 들어오기까지 40년동안 시내 광야에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됩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들에 나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한 주간 지키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연초에서 연말에 걸쳐서 한 해에 3번 반드시 지킬 것을 명하신 절기가 모두 감사하는 절기라는 사실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매우 뜻깊은 교훈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생활의 중심은 감사, 감사, 감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 이것이 선민된 성도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6-18)”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할까요.

첫째로 초막 안에 거하면서 지난 날에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인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 먼저 한 일은 들에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가지 등으로 초막을 짓고 이 안에 거하면서 지난 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 생활 40년동안 새벽에는 만나의 양식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먹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지난 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켰던 것입니다. (레 23:40-) 그러기에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바로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초막에 거하는(벧전 1:24) 나그네 인생인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와



광야같은 이 세상에서 오늘에 이르도록 먹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지난 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지난 날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헤아려 보면 오늘 의 현실이 아무리 감사할 일이 없다 할 지라도 감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한다는 것은 바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감사한다”의 “thank”와 “생각한다”의 “think”는 한 글자 차이 밖에 없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

먼저 지난 날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구원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오늘까지 살아 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주의 도와 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두번째로, 오늘에 추수한 정성된 예물을 제단에 바치면서 지켜야 합니다.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인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많은 재물을 제단에 바쳤읍니다. (민 29:12-38) 아마 3대 절기 중에 제일 많은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한 열매를 정성되어 바치면서 구속의 은혜와 생활의 은혜와 추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냈읍니다. (레 23:40; 렘 16:16, 17) 그 누구도 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뉘어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와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찌니라.” (신 16:16, 17) 말씀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받은 은혜를 바로 생각하며 감사한다면

자연히 정성어린 감사의 예물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더우기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축복인 것을 믿음으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명하사 추수감사절 제단 위에 오늘에 추수된 아름다운 열매로 절성되게 바치게 될 것입니다.

씨 심을 때에 뿌려 잘 추수했으니
금년에 먹고 쓸 것 풍족케 되었네
주 믿는 형제 자매 참 기쁜 예배로
주 앞에 몸과 맘을 다 함께 드리세
우리 쓰는 만물 다 주의 것일세
그 내려 주신 은혜를 늘 감사드리세

세번째로 내일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준비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인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 추수한 열매를 창고에 저장하여 새해를 맞이 할 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장절 (출 23:16)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절은 연말에 새해를 바라 보며 즐거워하면서 지키는 감사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the end of the year)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 23:16).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었는데 이 전도서의 중요한 교훈은 이 세상의 끝날에 주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있어 지는 사실을 보여 주는 말세론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은 오늘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어지는 신천지의 기쁨을 바라보며 즐거워 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희락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먼저 초막에 들어 가 거하면서 지난 날의 받은 은혜 특별히 출애굽의 구속의 은혜와 광야 생활에서의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깊이 회고하면서 감사하고 오늘의 추수된 열매와 재물을 정성껏 바치면서 감사하고 내일에 있을 새해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지킨 것처럼 우리들도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때에 무엇보다 먼저 초막에 거하는 나그네 인생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광야같은 이 세상에서 먹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여야 하며, 오늘에 받은 축복인 정성된 예물(물질)을 제단에 바쳐야 하며 더욱 앞으로

반드시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 할 준비를 하면서 알곡 신자가 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 갈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 하면서 이 감사절기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추수한것 모든 알곡 천국창고에 들인후에
주가 베풀 기쁜 잔치 우리들어 가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노니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

추수감사절의 유래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 23:16하)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3대절기중 오늘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40년간의 광야생활을 한 뒤에 가나안에 들어가 장막절을 지킨데서 유래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것이었다. 그러나 역사가 흐르고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각 나라마다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다르게 되었다.

콘스탄틴 황제는 매해 9월24일에 서율인 콘스탄티노플에서 지켰고 알렉산더교회는 대지진이 지나간 후에 이것을 감사하여 성대히 감사절을 지켰으며 그후 1605년 11월 5일을 감사절로 변경하여 20여년간을 지켜 내려온 동기는 폭도들이 왕과 상원을 덜어 버리려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간 것을 감사해서였다.

그러나 오늘 전세계 교인들이 가지는 감사절은 특별히 다음에서 원인하였다.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 이민들이 갖은 고생을 겪고 1623년에 비로소 훌륭한 수확을 하게 된 것을 기념하게

된 것이 감사절의 처음이다. 그해 11월 당시의 행정관 브랏로드가 감사절을 지킬 것을 선언하였으나 정식으로 국경일로 된 것은 워싱턴이 1789년에 11월26일을 감사절로 정한 뒤부터였다.

그뒤 1863년 링컨 대통령은 감사절을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개정하였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9년에 새 판례로서 11월 세째 목요일을 감사절로 정하였으나 미국 여러 지사들은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오늘날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그 해의 추수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지키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08년 독노회 제2회에서 미국의 날짜를 그대로 받아 들어서 지켰고 그후 1914년 제3회 총회에서 11월 세째주일 후로 다시 결정하였다. 또다시 1921년 9월 10일 평양 장대현교회의 제10회 총회 때 우리나라 형편에 맞도록 11월 2차 주일로 변경하였다가 11월 3차 주일을 감사절로 지켜 오게 된 것이다.

(*)



말세에 세워 준 은혜



이 인 희

(청년부 회원)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녹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할 때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렘18: 3~4)

오늘날 전세상은 경제난과 극심한 빈부의 차이로 인해 지상의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길거리에는 목숨이 붙어있는 해골이 발에 걸리적거리게 누워있으며 기아와 영양실조로 수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런가하면 세계 제일의 부강국 미국내에도 마약과 알콜 중독, 그리고 의탁할 곳이 없이 인간사회에서 스스로 소외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돌보는 사람없이 사회의 구석에서 죽어가고 있다.

해마다 기독교의 선교구역은 확장되어 왔으나 크리스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오히려 그 부담을 스스로 줄여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과 경제개발계획의 성과는 놀라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가난하게만 살아온 이 민족은 이제껏 중 가장 부유한 시대를 맞고 있는 것 같다.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으셨나?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지는 않았는지,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신뢰와 공명을 찾기 힘들게 되었으며, 물질에 대한 끝없는 집착과 욕심에 쫓겼는가?

로마시대의 킴박에 못지않은 박해 속에서 홀린 순

교의 피가 거름이 되어 이땅에 복음의 씨가 싹 텄다. 많은 축복속에 교회가 컸다. 현대 오늘 우리나라의 교회는 아직도 일꾼이 없어 찢찢매매, 영적인 스승을 만나지 못한 많은 청년들이 불물 터진듯 밀려드는 학과 논을 향해 맨몸으로 서 있고 이 나라의 교육은 미래에 소망을 걸기 힘든 상태다.

70년대 마지막 가을, 언제나처럼 아름답고 풍성한 혜택을 베푸는 가을이다.

이 감사절기에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그럴듯한 열매도 보고서도 없다. 감사절을 맞는 나의 마음은 오히려 착잡하다. 아니 두렵고 떨림으로 자비를 구할 뿐이다. 이는 할일 많은 이 말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나」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존재 자체가 감사



김 승 중

(청년부 회원)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주일학생 시절의 일이 생각난다. 그 주일날은 우리 어린 주일학생들도 밭에서 기르는 무우나 배추 중에서 제일 크고 잘된 것을 자자 한 포기씩 가져다 강대상 주위에 쌓아 놓고 이상한 흥분과 호기심으로 예배를 드리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 가지고 나올 무우나 배추가 없는 서울사람이 된 후로는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 드릴만한 신앙생활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내 생활의 발을 둘러보며 숨길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 밭이 너무나 묵어 있다. 말로는 꽤



열매가 있는 생활을 할듯한 사람인데 실제로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뚜렷하지 못하고 고난보다 안일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이익을 쉽게 선택해 버렸던 내 생활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묵고 메마른 내 생활의 밭을 깊게 갈아 엮고 씨를 뿌리고 추수하며 그것을 인하여 늘 감사드리며 살고 싶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살고있는 이 시대의 밭에 쉬임없이 뿌리며 쉬임없이 거두는 청지기의 삶이 복음의 씨를 맡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일때 때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천하의 행운아로서 나의 한평생이 항상 추수감사에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감사절을 보내고 싶다.

또 감사절을 맞으면서 감사에 대해 몇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다. 씨를 뿌리고 가꾸는 수고가 클수록 추수의 기쁨과 감사는 감격적이다. 아메리카 신대륙의 첫번째 추수감사절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뜨거운 감격이 지금도 내 마음 속까지 전달되는 듯 싶다. 하나님을 맘껏 섬길 수 있는 자유의 신천지를 찾아, 박해의 땅을 떠난 후 그들이 첫번째 추수감사제를 지낼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얼마나 뜨거웠겠는가!

사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할 때 새로운 세계 질서를 발견하게 된다. 물명이 하나 풀 한포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모든 것이 감사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구원의 은총과 섭리에 대한 감사야말로 모든 다른 감사의 원천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우리는 성공 뿐만 아니라 실패의 구렁텅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 받게 된다.

한편 감사 능력을 갖춘 우리들의 신앙 숙성도는 감사지수(T. Q) - 감사의 질과 양 - 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얼마나 참된 감사인가 돌아다 볼 때 우리들의 감사는 어쩌면 너무

나 자기 선전적이고 조건적인 것임을 발견한다. 이 름있는 감사가 일반화 되어가고 심지어 눈에 보이는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현실 구복적 감사도 있는 것을 볼 때에는 선교 백주년을 눈앞에 두고 긍지와 자긍으로 가득 찼 한국교회로서는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참된 감사의 도덕과 문화를 가꿀 책임을 지닌 교회가 아닌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연중행사일 수 없으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모두 감사의 원인인 것을 새삼 깨달으며 우리의 전부를 드려 헌신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릴만한 참된 추수감사인 것을 생각하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셨던 위대한 감사의 삶을 이 미 깊게 되새기고 싶다.

우리 나오는 감사를



유 미 화

(고등부 2년)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의 문턱에 섰다. 11월 초에는 1년 동안의 결실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하는 추수 감사절을 맞이 하게 된다. 우리들은 이 감사절을 해마다 다가오는 그런 의례적인 행사로만 생각하지 말고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어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조건을 찾아 경건한 마음으로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물질적인 소득을 하나님께 바치며 풍성한 결실을 감사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 동안에 가꾸어온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 놓고 감사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1년 동안 우리들의 실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빛을 비추었는가 하고 돌이켜 보게 된다.

* 감사절을 맞는 마음 *

이웃을 위하는 참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리는데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니 사랑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흘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시험하고 둘러싸는 죽음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의 평안을 주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생활을 감사드립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화를 내는 마음보다 그들을 이해하며 사랑해 줄 수 있었던 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절을 맞이할 때 이런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들 각자에게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다. 그 동안의 결실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마음속에서 부터 우러나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절을 맞이하고 싶다. 보잘것 없는 것이지만 우리들의 진정한 손길을 모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기쁘고 복된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본다.

우리는 모두 감사하는 마음을,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무 댓가없이 주신 하나님의 자애로움에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린다.

주님의 소원대로



박 명 련

(제일성가대원)

수북히 쌓인 낙엽들이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 짓기를 서두르는 것 같다.

한 여름의 분주한 자신의 일들을 끝마치고 평안히 누워 휴식으로 돌아갈 것을 기다리는 낙엽들이 나의

울 한해를 주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히 살아 왔나를 생각하게 만든다.

충현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한 후 5년 가까운 기간의 신앙생활 또한 되새겨 보게 한다.

장성할 때까지 전혀 주님을 모르고 지냈던 세월들을 용서하시고 성가대원으로 세워 주셨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

성가대원으로서 처음 주일 찬양을 드리며 일생을 성가대원으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던 일.

말씀을 통해 인생의 구체적인 방향을 세우게 해주셨고 기도에 일일이 귀 기울여 주시므로 믿음을 주시며 어려운 일들도 더러 있었지만 은혜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봉사활동등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을 돌릴 뿐이다.

올해도 추수 감사절을 맞는 지금 무엇을 주일에 결실로서 내어 놓을 수 있을까. 내어 놓을 것이 변변치 않음을 죄송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천국을 목적지로 하고 달려가는 나의 일생을 주님께선 주님 뜻대로 연주하시는 연주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악기로 드리고 싶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2:13)

주님의 소원대로 나의 일생이 전개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 무한한 지혜, 거룩하신 손으로 연주되는 음악이란 상상만 해도 아름답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 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찰떡이다. 비파야, 수금아, 찰떡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 57:8)

지방에 있는

독자들에게 알립니다

1980년도의 새로운 독자주소록을 작성하기 위해 침부한 업서를 통해 월간충현에 대해 몇가지 설문을 보냅니다. 기재하시어 보내 주시면 그것으로 독자주소록을 작성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월간충현 편집실

시편에서 주는

주간의 만나

시: 64: 1-2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전능하시고 인자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헤어날 수 없는 깊은 가시나무 수풀 가운데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사람은 들어줄 자가 없으나 하나님은 들어 주실 수 있다.

원수의 포위망에 싸여서 자기를 도울 자와 연락이 끊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연락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도의 부르짖음이다.

인명은 재천(在天)이라는 말과 같이 인생의 목숨은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을 바로 알아야 한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보존하실 수 있었다. 아무리 다니엘을 죽이려고 비밀스러운 꾀를 썼지만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다니엘의 생명을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다.

악을 행하기에 힘이 있고 열심있는 악한 자들이 날뛰어도 저들의 폭동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시64: 3-6

행악자의 언행심사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 하지 않도다』

악한 자의 비수를 갈듯이 혀를 갈아 타인을 찌려는 창과 같고 화살과 같다. 혀의 움직임은 인격의

대부분을 주장한다.

이처럼 숨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성도를 쏘려고 목을 지키다가 타인을 쏘고 만다. 악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위하는 마음도 없고 사람끼리 예의도 없이 기탄없이 악을 행한다.

또한 저들은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 권면하고, 서로 장려하며 악을 행한다. 선한 일에는 의견 충돌로 이루지 못하더니 악한 일에는 의견이 어찌 그리 잘 맞는지, 비밀히 타인을 잡으려는 울무와 덫을 놓기로 의논한다.

저들은 악한 일에 어찌 그리 지혜가 많은지 스스로 자기의 악한 지혜를 칭찬하면서 이 계획을 백발백중되리라고 장담한다.

행악자는 이처럼 언행심사 일만 도모한다.

시64: 7-10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의인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악인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들의 계획이 반드시 성공할 줄로 알았으나 하나님은 벌써 아시고 의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절단코 피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의 매는 아니 맞을 수가 없어서 몸도 마음도 꺼꾸러 지고 만다.

의인을 죽이려던 악인이 결코 피하지 못하고 없으려 지는데 저희의 혀는 자기를 멸망시키는 증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꺼꾸러 지는 악인들을 만인이 구경하게 되는데 구경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 분이요, 무서운 분이요, 의지하는 자에게 정말 산성이 되시는 분인줄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여호와와 공의로운 심판의 날에 여호와와 인자하신 은혜로 인하여 크게 기뻐할 것이며 더욱 하나님의 품안에 숨게 되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성도는 사람에게, 원수에게, 만인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 광고

이 형 수

지난 10월부터 우리는 아침마다 배달되는 조선일보의 인기작가가 쓰는 인기칼럼을 쓰는 내용없는 소설난 뒷 부분에 좀 별다른 난을 대하게 되었다. 그것은 특히 예수님은 우리들이라면 더욱 관심이 가는 그런 난이다. 정사각형의 모양에 「예수」라는 매일 꼭 같은 표제에 원고지 1매 반정도의 글이 실리고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로 시작되어 하이네, 김소월, 한국역사, 세계역사가 다양스럽게 펼쳐지면서 자신있고 긍지있는 예수 이야기가 단편적으로 나오고 있다. 볼 것 없는 신문중에 새롭게 추가 된 볼 것이 되었고 다음의 내용이 기다려지는 난이 된 것이다.

수소문하여 본 결과 이것은 내년도 80년 민족복음화대회를 앞두고 어느 단체가 대회일까지 계속적으로 신문의 가장 비싼 지면을 사들여 간접적인 전도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신문사의 입장에서 광고인 셈이다. 일종의 예수 광고랄까. 이유야 어찌됐든 독자들의 입장에서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로서는 매일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신문의 기사들 틈바구니에 번쩍 띄이는 매우 낮익고 친밀한 불만한 구석인 것이다.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침마다 바른 시간에도 단편적이거나 성경말씀을 대하며 생각할 수 있어 좋고 또한 불신자들에게는 보다 새로운 전도의 방법이 될 것 같다. 더구나 일간신문이 전국의 방방곡곡과 해외의 구석구석을 매일 누빈다고 생각해 볼 때 이처럼 과급효과가 큰 전도의 방법도 없을 것 같다. 돈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다짐하고 돈을 버니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아직 늦지 않으니 일간신문의 어느 귀퉁이를 사서 매일 성경말씀을 광고하라. 그래서 신문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날까지 매일의 모든 신문에서 성경말씀 그 자체가 광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지나친 망상일까.

저 밭에 농부 나가 (새 572장)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으니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 순환 따라 흰 눈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 주니 그 사랑 한없네

이 찬송은 4/4박자, 「가」장조로 되어 있는데, 곡의 흐름이 매우 경쾌하고 활기에 차있다. 그 가사에서 벌써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씨 뿌리러 나가는 농부의 힘있는 발걸음에서 부터 시작하여 뿌려놓은 씨앗의 움돋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된 아름다운 찬송이다. 그리고 이 찬송에서 변화 많은 계절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으며, 그 후에 농부들이 들에 나가 곡식을 거둬들이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자연풍경화처럼 아름답게 쓰여져 있다.

“우리 쓰는 만물 다 주의 것일세
그 내려 주신 은혜를 늘 감사 드리세”

이렇게 후렴에서는 이 모든 자연의 섭리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임을 감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2절에서 원근에 보이는 산천초목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신비롭고, 그 가운데 핀 들의 꽃 한송이, 날으는 새도 길러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노래한다. 마지막 3 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먹고 쓸 것이 풍족케 되었으니 우리 믿는 모든 형제 자매여 하나님께 감사로 기뻐하실 예배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함께 드리자는 것이다.

이 찬송은 1740년 독일에서 태어난 마티아스 클라우디우스(Mattias Claudius)가 썼는데 그는 한 때 독일에서 농정국장을 지내기도 했었다.

그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졌을 때 그의 사랑하는 동생이 폐병으로 죽었고, 자기 자신마저 폐출혈로 사경에서 해탈 때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다. 기적적으로 건강을 다시 되찾은 그는 그의 공직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많은 찬송시를 쓰게 되었다. 이 찬송은 그가 1782년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이 찬송은 독일 국민들의 가장 흥미로운 행사인 추수제(Harvest Festival)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널리 전해지게 되었다.

김 하 진 목사 (성경학원·성가부지도)

* 도서정보 *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 10월에 들어온 도서 —

I. 구입도서

1. 성경역사

1) 성경형성의 역사; 원용국저. 성광문화사, 1979, 231p.

2. 목회학

1) 목회자가 쓴 청지기적; 임택진저. 대한예수 교장로교회교육부, 1976.

II. 기증도서

- 1) 계시록강해; 김승곤저. 성도출판사, 1979, 324p.
- 2) 성령론; 빌리 그레함저 전민식역. 중현출판사, 1979, 239p.
- 3) 신혼부부의 목상; 존 드래서저. 전민식역. 중현출판사, 1979, 195p.
- 4) 참다운 자녀교육; 하물드사라저. 전민식역. 중현출판사, 1979, 192p. (이상 4권 김기정 장로님 기증.)
- 5) 내가 본 중공대륙; 이종윤외저. 신조사, 1979, 240p. (3권 이종윤박사 기증)

* 도서실소식 *

1. 특강

일시: 1979. 12. 9 오후 3시 30분.

장소: 청년부실.

2. 독후감발표.

제목: 유, 초등부-신앙인물 전기

중, 고등부-복음미수꾼: 부라더, 앤드류 지음. 천로역정: 존번연 지음. 불사조의 노래: 차윤순지음.

일반부-기도의 능력: 바운즈지음. 그의 삶을 따라서: 마이클 그린 지음.

발표: 감상문으로 (1) 유, 초등부-200자 원고지 6매, (2) 중, 고등부-12매, (3) 일반부-16매~20매

시상: 1979. 12. 16 각부별로

원고마감: 1979. 12. 9 오후 6시까지

* 책 소개 *

에이 엠 렌워크 지음 생명의 말씀사

간주린 교회사

국판, 244페이지, 1100원

교회사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든 것은 얼마 전부터의 일이다. 요즘이야말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 것이며, 어떤 것이었던가를 일반 성도들도 꼭 알아야만 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신약교회가 설립된 후 오늘날까지 교회의 선교 활동, 조직, 교리 국가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역사적 안목과 더불어 신앙의 수직적 깊이에서도 수평적인 안정을 더해 줄 것이다.

본서는 쉽게 쓰여졌다. 약간의 세계사 지식으로도 별 불편없이 읽을 수 있다. 요령있는 장명(章名)과 간명한 소재물들은 이해에 도움을 주며 독자들에게 실증을 주지 않는다. 저자의 입장은 객관적, 보수적이어서 안심하고 읽을 수 있으며, 개혁주의도 소홀히 취급되지 않고 있다.

본서 전체에는 저자의 중요한 생각, 즉 현재 우리가 올바른 인도를 받으려면 과거의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생각과 이 과거의 것들을 배후에서 역사하신(따라서 앞으로도 역사하실) 섭리자의 손길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미래가 환하게 밝지는 않으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의 백성을 앞서 가신 주님께서 이 현대에도 그의 믿는 교회를 잊지 아니하실 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말로 본서를 마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려는 독자에게 몇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먼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읽으라는 것이다. 문제가 없었던 때는 없었다. 이때마다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였던가, 그 문제의 성격과 해결점은 무엇이었는가 끊임없이 묻고 생각하면서 읽기를 권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읽으라는 것이다. 특히 성사(聖史)로서의 교회사는 구속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적 과정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교훈을 현대에 적용시키라는 것이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교훈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 주 진 전도사 (고등부 부지도)

기독교의 도덕적 이상

김 하 진 목사

(성경학원 · 성가부지도)

기독교의 궁극적인 도덕적 이상은 이 땅위에 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②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라 하겠다.

전자에 관하여는 지난 10월호에 게재 되었으므로 이번 11월호에서는 후자에 관한 것만 다루어 보고자 한다.

II. 하나님 나라 형성

1.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성경적 근거

1) 신약적 근거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바시레이아”(Βασιλεία)란 말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은 신약에서 140여번이나 나타나 있는데 대부분 공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같이 하나님 나라는 신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중심적인 내용이다. 이 말은 (Βασιλεία)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왕, 혹은 그의 통치를 의미한다. (참고성구/ 마 3:2; 4:7; 10:7; 9:35; 24:14; 18:13; -천국에 관한 비유, 26:29, 막 1:14, 15:4; -천국비유, 22:16, 18, 29, 행 1:3, 6 -하나님 나라 일, 8:12 -하나님 나라 복음, 19:8; 20:25; 28:23, 31)

2) 구약의 배경

신약의 하나님 나라 관념에 대하여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것과, 이에 대 유대인의 기대에서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참고성구/ 삼하 7:12-16, 시 2:112; 98:7-9; 110:1, 사 2:2-4; 9:6, 7; 11:1-10; 40:9-11, 렘 23:5, 6; 31:31; 32:37-; 37:7-; 33:14-16, 겔 24:23-; 37:21-25, 단 2:24-36; 7-13, 14, 18-, 미 4:1-7, 숙 9:9, 10)

이상의 모든 예언에 있어서 여호와와 백성의 장래의 구원은 장차 오실 위대하고 독특한 왕과 그 왕국의 건설과 관계되어 있다. 이 왕국의 관념은 구약의 신정(Theocracy)과 다윗의 왕으로 그 상상(想像)

과 용어를 인출하였고 또 거기에 기초하였다.

구약에서 여호와와 그 백성과 관계하여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적용한 것은 없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신정은 있었다. 구약 제시의 초기에 있어서 여호와와 그 택한 백성과의 사이에 관계는 특히 “메리트”(מִיְיָ - Covenant, 언약)로 나타난다. (출 19:5-6)

그래서 하나님은 신정을 인정하고 침해하지 않는 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왕상 8:7, 22 12:12-14) 특히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첫 왕으로 그의 왕이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언약을 받은 왕이 바로 다윗왕이다. (삼하 7:12-14)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왕을 인정하신 것은 장차 메시아 왕국이 있을 것을 예표한 것이라 하겠다.

2. 하나님 나라의 의의와 본질

1) 하나님 나라의 의의(意義)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가 전하신 천국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천국관과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유대인들은 장차 올 천국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현되며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가 관심의 점이 되어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더욱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예수님이 의미하는 왕국은 무력에 의하여 건설될 정치적인 국가나, 하나님의 능력있는 활동에 의하여 갑자기 출현될 천계적 왕국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하여 실현될 하나님의 이상적인 새로운 형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중요한 문제는 그 실현의 시기와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때에 누가 이 왕국의 시민이 될 자격이 있으며 누가 이 새 질서 주인이 되어 특과 복리를 향유할 수 있겠는가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지가 지상 명령이 되

고 최고 법률이 되어 통치되므로 그의 의지에 반대하거나 사랑의 원칙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이 왕국에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 오직 산상교훈에 인정된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① 자기의 약점과 죄과를 확실히 의식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이며 ② 스스로 조심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너그럽게 용서하며, 욕심을 버리는 행위와 정신에 있어 최선을 추구하기에 전심 전력을 다하는 자이며, ③ 자비로운 마음을 실현하는 자, ④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순결하며 깨끗한 마음을 소유한 자, ⑤ 사람들로 더불어 적극적으로 친선과 평화를 증진 향상시키는 자, ⑥ 의를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수고하고 희생하는 자와 같은 사람들만 천국 시민으로 약속된 온갖 복락과 자유와 영광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2) 하나님 나라의 본질(本質)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그의 통치를 말한다. 그러므로 왕국의 본질은 왕의 높으신 권세와, 그의 백성이 그의 다스리심에 대하여 복종함에 그 기초를 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적이면서도 미래적인 것이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현존의 실재만 인정한다. 반면에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Dispensationalists)은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는 인정하지 않고 종말론적인 것만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상의 두가지 주장을 다 용납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현세적이면서 미래적인 것으로 말한다. 사실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도들의 마음 속에 이미 실현된 것이며, 이를 전설하고 확장해 나갈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오순절 이후 복음 전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나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하여 지도하시며, 그가 재림하실 때 완성되도록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도덕적 이상이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강권적 힘으로 그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실현코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

도는 그의 왕국 건설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이다.

3. 하나님 나라의 가치(價値)

1) 하나님 나라의 생활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생활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로 항상 저들의 행복된 생활을 약속하고 그의 자녀된 인간들은 한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정의, 평화, 자유, 성결, 복락, 영광, 영광으로 충만한 신천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인류의 최고의 선으로서 전 세계를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하고 귀한 이상적 유산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해서 말하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와 같은데 이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것과 같다(마 13:44-46)고 하였다. 사실 천국은 인간이 소유해야 할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이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전심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2) 하나님 나라의 표준과 중심은 아버지되는 하나님인 까닭에 우리 인간은 아버지와 같으려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다.

3) 신약에서 정의란 신성과 그의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며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도덕적 법칙의 완성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기독교 이상의 기본적인 중심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의는 바리새인의 의와 같은 외식적이며 허영적이고 노예성을 띤 부득이한 순종의 의가 아니라 깊은 속에서 솟아 오르는 실질적이며, 자발적인 그리고 호의적이면서도 봉헌적인 의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의 가장 위대한 영적 능력이다.

4) 끝으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중심은 사랑이다.

이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데 있어서 최고의 법률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하는 유일한 생명적 연결체이다. 이것으로 과거 인간의 불의, 죄악으로 만연되었던 사회제도는 영원히 물러가고 온유, 겸손, 희락, 자비, 봉사, 영화로써 충만한 새로운 세계가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이상적 새 사회 질서는 말로 우리에게 있는 전 소유, 전 세계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신성한 하나님의 은사임을 알아야 하겠다.

중국대륙 선교를 위한 출범

김 영 휘 전도사

(해외복음선교회 · 선교부지도)

서 언

지난 10월29일부터 11월 6일까지 선교 본부에서는 홍콩주재 홍콩만선교사가 최근 급변하는 중국내의 상황 변동에 따른 앞으로의 선교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급히 내한하는 것을 맞이해서 여러가지 선교 실무협의를 가진 바 있는데 이는 전 세계의 눈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수많은 영혼을 위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출범이 될 것으로 믿어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1. 중국선교를 위한 중심 조직체의 설립 문제

한국교회의 선교적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교대상이 중국대륙인 것 같다. 인구가 10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굳게 닫혀 있던 검은 대륙이 서서히 그 베일을 벗고 죽의 장막의 문이 열리는 때를 기회로 복음의 빛을 비취야 할 진박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시아에서 이같은 사명을 감당할 교회는 한국교회 밖에 없다는 자부심과 또한 강렬한 사명감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중국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고조된 관심과 분위기는 오히려 자칫하면 무분별하고 바르지 못한 중국선교의 방향을 유도시킬 가능성이 있는 고로 상당한 절제와 올바른 계몽을 통한 그리고 장기적인 선교계획과 정책의 수립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것을 위하여 일원화된 중국선교의 중심 조직체의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중국선교를 알릴 것이 아니라 중국내의 최근 정확한 정세에 입각한 올바른 선교 정책과 계획을 세우고 지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중국의 최근 정확한 상황에 근거하여 선교정보를 제공하는 정기 간행물의 발간 문제

중국선교의 중심 조직체가 설립되면 이 곳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중국 선교정보를 제공하는 정기 간행물의 발간이며, 이로써 중국선교에 관심있는 교회와 지도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선교의 관심있는 성도들과 교회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기도와 지원을 하게끔 지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같은 일들을 홍콩의 수 많은 중국선교 연구기관이나 북구라와의 공산권 선교 연구기관에서 활발히 간행되어 나오는 팜프렛 등이 많다. 이들을 정기적으로 구독하여 수집하고 필요한 것들을 발췌해서 한국어판으로 번역하여 새로 편집하고 인쇄하여 관심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올바르게 계속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3. 중국에 있는 중국인 성도들과 만주에 있는 한인 성도들에게 성경 및 종교서적 보내기 운동

최근 문호가 점차 개방됨에 따라 북경정부에서는 부분적이거나 종교의 자유를 점차 완화해 가는 것 같다. 따라서 중국내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들 교회를 우선 다음 세가지 종류로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는 정부에 의하여 문이 열리는 관립교회이며, 둘째는 지하교회로써 일종의 가정집회이며, 성도들의 세례는 중국 북쪽 만주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한인성교회등 이상 세가지 교회가 있음을 주시해 할 것이다.

김영휘 전도사



중국에 있는 관립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얼마전만 하더라도 북경에 한 곳, 상해에 두 곳 모두 세 군데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외에도 항주, 아모이, 심양(과거이름 봉천) 등지에도 개회되었다고 한다. 이중 특히 상해에 있는 어느 한 군데 교회(모리슨 메모리얼 처치)는 금년 9월 첫주 집회에 1,200명, 둘째 주일 집회 때는 1,600명, 셋째 주일엔 2,200명이나 모였다고 하는데 넷째 주일부터는 2부예배를 드릴 예정이라고 한다.

또 상해의 나머지 한 군데는 청심(淸心)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로서 최근엔 800여명이 모여 집회를 가졌다고 한다. 물론 이들 교회는 관립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들이 북경정부에 의해 임의로 선정된 지도자들이지만, 그 가운데 성도들은 참으로 오랜만에 집회의 자유를 얻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에서 예배에 참여하여 눈물 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하였다가 나온 어느 목사의 술회를 들을 수 있었다.

다음에 지하교회 혹은 가정집회는 중국내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무수히 많다고 하는데 주로 복건성, 절강성, 광둥성 등지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한 번 집회에 60명 혹은 100여명 모이는 곳이 무수히 많고, 이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과거 문화혁명 때까지 투옥된 지도자로서 자유와 물질이 들어감에 따라 풀려나온 사람들이 그들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 관립교회들과 지하교회들이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다. 한국 교회로서는 이들 가운데서 특히 지하교회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선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 두 종류의 교회에 대한 선교지원

중 가장 중대한 지원은 무엇보다도 성경보내기 운동이다. 문화혁명 이후 중국내에서는 성경을 거의 모두 불태워 없애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 볼래야 볼 수 조차도 없는 상황이므로 무엇보다도 성경지원이 가장 중요한 지원이 될 것이다. 관립 혹은 지하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필요한 성경은 최근 현대 중국어로 된 중국어판 신구약 성경(미화5불)이 있고, 영어바탕이 대단히 불고 있기 때문에 영·중 대조성경(미화2불)이 매우 효과적 일 것이다. 이같은 성경을 보내는 면에 있어서도 한국 교회는 서로 연합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이다.

세세로 만주에 살고있는 한인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소식은 극히 최근의 뉴스로써 우리의 대단한 관심에 아닐 수 없다. 중국에 전체적으로 흩어져 살고있는 한인교포의 수는 대략 300만명 내지 400만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200만명 가량이 만주 길림성 부근에 집중하여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 과연 몇명이 성도의 수인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소식에 의하면 그 수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비교적 종교의 자유도 보장받아 심양의 어느 한 군데 교회에서는 사경회를 가진 적도 있으며 야외예배까지도 나갈 정도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이들 교회에 있어서도 가장 요청되고 있는 것도 한국어 성경이다. 최근 아세아방송국에 들어온 놀라운 소식의 하나를 소개해보자.

아세아방송의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신약성경을 천천히 낭독해 줌으로써 받아 쓸 수 있게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루도 빠짐없이 청취하여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필기하



《최근에 문을 연 중공
어느 교회에 그동안
숨겨두었던 성경들》

는 데 성공했다는 반갑고 놀라운 소식이 바로 그것이다. 만주의 복단강 근처에 살고 있는 15살 남 고아 소년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 다시 말해서 만주에 있는 한인성도들은 이와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하여 서로 나누어 베끼고 돌려 볼 뿐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요긴한 것은 성경전서를 소유하는 일이라는 것을 절감할 수가 있다. 우리는 앞으로 만주내에 있는 한인성도들의 주소를 더 많이 입수하여 그들에게 성경을 속히 보급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관립교회나 지하교회 그리고 만주 한인교회에게 성경을 보내는 방법에는 현재로서는 두 가지가 있다. 우편으로 우송하는 방법과 직접 사람을 통한 인편의 방법이다. 우편으로는 일주일이면 도착하고 일주일 후면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결과를 알 수가 있다.

인편으로는 북경까지 미화 600불이면 한 사람을 보낼 수 있고, 만주까지는 미화 1,000불이면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지역마다 우송이 반송되는 수도 있고, 또 인편의 위험성도 각오해야 될 것이다. 어쨌든 성경을 보내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두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 성경을 보급하는 데 우리 한국교회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교회 성도들마다 1인1권의 성경책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면 한번에 적어도 450만 권의 성경을 중국대륙에 보급할 수가 있을 것이다.

4. 마카오지역에 중국인교회 개척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충현지 10월호에, 그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 설명한 바 있어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려니와 이 지역에 선교의 열심있는 교회가 설립된다면 이곳을 통하여 중국대륙에 선교상 전략적 관문이 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5. 중국선교를 위한 세미나 혹은 대회 개최 문제

앞서 말한 여러가지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중국선교를 올바르게 하려면 중국선교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전문강사의 초빙을 통한 세미나 혹은 대회가 중요하다고 본다.

홍콩에는 이와같이 중국을 향하여 선교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으며 또한 전문가도 많다. 그러므로 이들을 초청하여 한국교회가 교과와 교회를 초월하여 함께 세미나를 열어 귀중한 연구자료와 선교대책을 강구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정확한 연구와 정책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야 될 것이다.

6. 중국선교의 장기적인 계획을 위하여 전문선교사를 양성하는 문제

한국교회의 선교적 사명의 고조는 단순히 부흥회나 강단의 설교를 통해 간헐적으로 감정을 유발시키는 것만으로는 위험스런 일일 뿐만 아니라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일이므로 무엇보다도 전문선교사를 양성하는 문제가 절실히 요청된다. 더구나 공산권이냐 중국선교를 위해서는 조용하고 꾸준한 계획으로 선교사를 양성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외국의 유명한 선교단체에 입회시켜 단기 혹은 장기 인물양성을 위해 과감히 투자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홍콩이나 북구라와 혹은 영국 같은 곳에는 대공산권 선교학교가 있는데 이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인물양성



〈중공에 들어간 폴 카우프만 목사가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

을 지금부터 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7. 중국선교의 전제조건

끝으로 중국 선교의 수행에 있어서 사전에 전제해야 될 몇 가지를 말한다면 첫째 중국선교는 중국의 현재 합법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현재 종교원칙은 삼자법칙(三自法則: Three-Self Laws)이 있는데 이는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 자치(自治), 자립(自立), 자전(自伝)의 원칙으로서 외부의 어떤 간섭이나 지원을 막고 독자적으로 종교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현재 북경정부는 선교사들을 받아들일 리 없고, 설불리 지나치게 그들의 감정을 자극할 때는 오래간만에 열려지는 북음의 문이 언제 갑자기 닫혀 질른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 사회주의 체제에 도전하거나 자극을 주지않는 한도내에서 선교활동을 조심스럽게 전개해야 될 것이다.

둘째 그러므로 현단계에서 중국선교나 공산권선교는 우리가 직접할 수 없고 해외에 기존해 있는 선교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가령 해외의 선교단체를 활용하여 정보수집과 연구를 장기적으로 준비하며, 공산권 연구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접촉하여 지원하는 등도 있을 것이다.

세째 중국선교나 공산권선교를 위하여 산발적인 운동보다는 연합하여 공동전선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중국선교나 공산권선교가 최근 상당한 열기를 가지고 여러 교단과 지도자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 의하여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실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한편 이것이 지나치게 경쟁의식을 가지게 된다면 결코 이익될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만주의 한인성도중 어느 한 성도와 편지로 접촉된 한국의 어느 교회 지도자가 너무 감격한 나머지 이를 외부에 알려 성경을 지원할 것등을 신문에 호소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만주 한인성도의 주소까지 활자화 되어 나온것이 후에 큰 화근이 되어 그 성도는 자기가 살고 있던 거주지에서 쫓김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산권선교는 결코 경거망동 하여 할 것이 아니며, 또한 경쟁의식도 억제하여야 되며, 다양한 방법의 선교방식을 활용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전선을 취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모처럼 북음의 문이 차츰 열려지는 이때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온갖 지혜와 주의를 갖고 선교해야 될 것이다. (*)

성경통신 10월호

모범답안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다	36	입
2	백발	37	라
3	손자, 아비	38	다
4	0	39	나
5	양약, 근심	40	가
6	18 : 8	41	사람의 명천
7	나	42	나
8	다	43	×
9	19 : 11	44	다
10	여호와와 뜻	45	다
11	백발	46	창조자
12	재물, 영광, 생명	47	몸(육신)과 영혼
13	라	48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14	다	49	나
15	23 : 17 - 18	50	가
16	다	51	2 : 7
17	금사과	52	다
18	×	53	0
19	다	54	다
20	라	55	라
21	나	56	2 : 12
22	가	57	라
23	마	58	나
24	나	59	마 4 : 15 - 16
25	사자	60	남은 자
26	다	61	어린양
27	지혜	62	다
28	29 : 25	63	0
29	전루	64	21 : 11
30	31 : 30	65	성실, 전실
31	출로몬	66	0
32	0	67	15년
33	혼, 혼	68	시 66 : 12
34	4 : 13	69	라
35	다	70	45 : 22

10월중 새 교우명단

새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1 지구

삼양①구역 박천덕 도봉구 미야 6동 1265번지 226 29/3
정능 구역 이혜경 상봉구 정능 4동 266-35
회현 구역 하정일 영등포구 신길동 185 5/4

• 2 지구

왕십리구역 윤지원 중구 신당동 7동 469 17/1
홍인②구역 김진희 중구 황학동 162번지 15/2
천호 구역 김보영 강남구 천호동 223의 23 6/3
천호 구역 최미자 강남구 성내동 1가 214
풍납 구역 오점숙 강남구 풍납동 357의 14
왕십리구역 김춘배 성동구 하왕십리 2동 1024의 1 27/1
마장 구역 이민자 성동구 마장동 519의 4 16/3
신당①구역 조옥석 중구 신당동 236의 338호 16/3
휘경 구역 황분남 동대문구 휘경동 145의 4 호 20/5
면목②구역 문영숙 동대문구 면목 3동 499의 24 10/3
왕십리구역 김서경 성동구 행당동 298-69

• 3 지구

이태원구역 박임순 용산구 이태원동 655 20/2
강남②구역 이도한 강남구 신사동 455-10 2/1
압구정구역 우혜경 강남구 신사동 273-2 3/1
잠실②구역 정경자 강남구 잠실 5동 525동 805
잠실④구역 김은숙 강남구 잠실시영 Apt 128동 306
불광 구역 홍영명 용산구 이태원동 14-12 12/3
금호 구역 선진선 성동구 금호동 2가
성남 구역 정금연 성남시 태평동

• 4 지구

필동①구역 이미숙 중구 필동 2가 22번지 7호 1/3
상도①구역 정방용 관악구 노량진 2동 273-53 20/2
인현①구역 이미화 중구 인현동 1가 138-3 10/4
대방 구역 조순연 영등포구 신림 6동 368-3 13/4
마포 구역 강경희 마포구 아현 1동 23-3 2/5
봉천②구역 진정숙 관악구 봉천 6동 19-3 10/2
필동③구역 이정옥 중구 필동 3가 19-5 6/4
봉천①구역 전명수 관악구 봉천 8동 174-157 30/7

필동③구역 김정숙 중구 충무로 5가 85번지 12/5
 반포②구역 이진용 강남구 반포동 제2차신반포Apt111-701
 신림②구역 권석기 관악구 신림동 542-14 8/4
 진양 구역 민길숙 중구 충무로 4가 125 진양Apt 714
 진양 구역 서봉남 중구 충무로 4가 125번지 1호

• 5 지구

북가좌구역 박성희 서대문구 홍은3동 277번지 158호 11/5
 서문①구역 허 원 서대문구 서소문 120 14/5
 을지②구역 장의형 중구 을지로 6가 17-19 13/1
 명륜 구역 정정아 종로구 원남동 27-5호
 청운 구역 권승균 종로구 부암동 332번지 24
 구로 구역 한인자 영등포구 구로2동 714번지 21호
 문래 구역 이성혜 강서구 목동 404번지 111호 28/7
 효자 구역 방영실 종로구 필운동 110
 중무①구역 윤연점 중구 충무로 5가 22-21
 종로 구역 정영환 종로구 예지동 4가 164 10/5
 중무①구역 임준오 중구 충무로 5가 2번지 2호
 중부 구역 남인태 중구 을지로 5가 12공구 2층 586호

* 축하합니다 (10월 중 결혼)

- 이일영군(세일성가대원) 1일 오전11시 본교회당
- 성주진군(고등부 부지도) 1일 오후 1시 본교회당
- 안석열군(안준걸씨 서용근권사아들)과 이성옥양(이성봉 목사동생) 8월 12일 본교회당
- 위은성양(김복식집사 장녀) (대학부교사) 9일 12시 본교회당
- 이의준군(지도자 양성부) 9일 오후 2시 본교회당
- 이정웅군과 김경숙양(청년부회원) 10일 오후 1시 본교회당
- 김용순군(김원구씨 아들) 12일 12시 행복예식장
- 이영두군(을지구역) 16일 12시 동원예식장
- 이현숙양(이곤녀권사 딸) 17일 오후 1시 본교회당
- 김명순양(한순선집사 딸) 20일 오후 2시 본교회당
- 윤성자양(여성 성가대원) 20일 오후 12시 본교회당
- 장덕철군(망우구역 한복녀씨 2남) 16일 오후 1시 기독교 대화관
- 지용범군(지호연씨 아들)과 정복임양(정희순씨 딸) 23일 12시 YWCA
- 장주석군(장명규집사 김정숙권사 장남) 23일 오후 1시 본교회당
- 신승균군(성남구역) 24일 12시 본교회당
- 한철만군(압구정구역) 27일 12시 본교회당
- 김중국군과 박상옥양(박만주씨 딸) 27일 오후 2시 본교회당
- 은종원군(은인기씨 아들)과 임정화양(임봉남집사 김순복권사 딸) 27일 오후 3시 여의도 반도호텔
- 박승희양(양계숙권사 딸) 27일 오후 2시 YWCA 4층

* 권찰수첩 ⑩ *

효과적인 구역심방

김 재 창 목사
 (부목사·구역권찰회회장)

구역심방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이다.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가?

1. 감사하는 마음이다.

원죄와 자범죄로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받을 수 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신분의 식에 대한 감사와 주께서 맡겨 주신 구역의 양무리들을 주님을 대신하여 돌보는 고귀하고 영광된 권찰의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때 보다 효과적인 심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시편 100:1~5절)

2. 겸손한 마음이다.

내 구역안에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내가 심방 할수 있게 된것을 큰 사명이요 남다른 특권이라고 감사하는 것은 좋으나 혹 우월감이나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절대로 안된다. 오직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망위에 죄로 더러워진 저희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 가정과 심령들을 심방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빌립보서 2:5-8)

3. 사랑하는 마음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이웃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주고, 알뜰히 돌아보는 일은 분명이 값진 일이다. 사랑으로 하는 일은 험고 그 효과도 크게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없이 마치 못해하고 되는대로 하는일은 힘만들고 효과는 적다. 아니 도리어 손해가 많다. (요한복음 21:17-15)

4. 결심하는 마음이다.

주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과 더욱이 구역원을 돌아보는 권찰의 사명을 받은 주님의 종들은 세가지 결심하는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원하는 마음 둘째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마음, 셋째는 모든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신령한 유익을 얻게 하려는 마음이다. (고린도전서 10:31-33)

해외복음선교회가 제공하는

선교 월보

인도네시아 - 서 만 수 선교사

1. 금년도 후반기 성례식을 10월 7일 거행하여 학습 세례, 유세 각 1명에게 배품.
2.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사용 교회들의 합동성찬식을 10월 7일 거행.
3. 정글 순회용, 인도네시아어 찬송카세트 제3집이 제작완료됨.
4. 오랫동안 사용되어 노후된 할렘루아호(마이크로 버스)를 대신하여 호산나호(웨곤)를 구입하였음.
5. 개척지 소식
 - ① 팰데안지역(수교요전도사) 4명 결신.
 - ② 골로지역(얄민전도사) 1명 결신.
 - ③ 워노기리지역(마르판도전도사) 2명 결신, 9명에게 세례.
 - ④ 수프레조지역(얄민전도사) 3명 결신.
 - ⑤ 롬봉마스(요육전도사) 21명에게 세례.
 - ⑥ 뿌차왕이(스와디전도사) 1명 결신, 27명에게 세례.
 - ⑦ 워노사리(산또소전도사) 1명 결신.
 - ⑧ 뿌충(요나단전도사) 2명 결신.
 - ⑨ 수디모로(수교요전도사) 3명 결신.
 - ⑩ 메갈레로(자야꾸스마전도사) 8명 결신, 예배당건축, 기공예배드림.
 - ⑪ 숨버레조(뿌리바디전도사) 3명 결신.
 - ⑫ 웅구당지역에 수하르도노전도사 파송.

이렇게 하여 현지 전도인을 금년 10월말 현재 19명을 파송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음.

6. 홍콩주재 인도네시아 태생 중국인교회에 인도네시아어 성경전서를 발송함.

* 기도 제목 *

1. 11월 1일부터 비자연장수속을 시작했다고 하니 온 교회가 합심기도하자.
2. 정글사역자들을 통해 얻은 결신자들을 위하여

홍 콩 - 홍 종 만 선교사

홍종만선교사는 중국대륙 선교를 위한 실무 협의차 10월29일 일시 귀국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을 보

내셨다.

1. 10월30일 기독교신보사및 크리스찬신문사에서 중국 선교에 관한 인터뷰.
2. 10월31일 아시아방송국을 방문하여 중국선교에 관한 대담, 녹음과 외향선교회(이사장 최훈목사)와 협의.
3. 11월 1일 총회신학대학 교수들과 대담 「중국선교의 밤」 집회를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가짐.
4. 11월 3일 전도실무자들과 협의.
5. 11월 4일 주일오전 설교.
6. 11월 7일 임지로 출국.

* 기도 제목 *

1. 중국대륙및 만주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교의 지원을 하는 문제.

애 굽 - 김 신 숙 선교사

1. 애굽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계속 선교 활동중이심.

* 기도 제목 *

1. 선교사님과 자녀들에게 건강과 영적인 축복을 위하여.

서 독 - 육 호 기 선교사

• 뷔츠부룩 한인교회

1. 10월에 대심방을 실시함.
2. 주일학교를 실시: 미국성도들을 반사로 채용하여 실시함.
3. 교회 버스구입: 성도들의 특별헌금으로 새 버스를 구입함.
4. 당국으로부터 한인교회의 예배처소로 완전사용하라는 허락을 받아 이제부터는 교회행사를 자유롭게 할수 있게됨.

• 비스바덴 한인교회

1. 11월 대심방실시.
2. 추수감사절 세 교회 연합예배를 드림.

• 하나우 한인교회

1. 10월 대심방실시.

해외복음선교회가 제공하는

선교월보

2. 매주 수요일마다 구역예배 실시.

* 기도 제목 *

1. 자체 교회건물을 가질 수 있도록.
2. 선교사님의 영육의 건강을 위하여

아르헨티나 - 백 성 룡 선교사

* 기도 제목 *

1. 재야 중앙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하여

호 주 - 김 태 현 선교사

1. 대심방을 실시.
2. 병원심방 - 이상택목사(아현중앙교회 부목) 부인
3. 지역 교역자회 인도.
4. 매주 금요일마다 성경공부및 기도회를 가짐.
5. 제회사항 - 멜본항에 입항하는 외항선(한국 어선)에 전도할 계획.

* 기도 제목 *

1. 멜본한인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하여

애 굽 - 이 준 교 선교사

1. 10월31일 총회주관으로 파송예배 실시.
2. 11월 1일 오후 2시50분 임지로 출국.
3. 11월 3일 카이로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다음과 같은 전보가 왔음.
「이준교목사와 가족식구가 11월 2일 카이로에 도착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 소식을 교회에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1. 애굽선교를 시작하는 이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하여.

일 본 - 유 병 세 평신도선교사

1. 이윤호권사님(사모님) 10월27일 임지로 무사히 안착함.
2. 태풍으로 한국어선 2척이 침몰하여 50여명의 희생자가 생겼고, 중환자치료를 위해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냄.
3. 새벽기도회 계속 인도.
4. 기타 각종전도를 실시중.

* 기도 제목 *

1. 유선교사님에게 영육의 건강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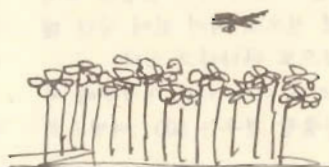
서 독 - 박 용 삼 평신도선교사

* 기도 제목 *

1. 박사학위 논문과정이 잘 마무리되도록.
2. 선교사님의 온 가족의 영육간의 강전을 위하여

선교본부 - 해외복음선교회

1. 80년도 선교계획과 예산책정을 위해 작업중임.
2. 파라과이의 요청에 의해 선교사파송 의논하던중 11월12일 당회에서 본교회 부목사인 김재창목사님을 임명하여 출국 수속중임.
3. 선교헌금을 내주신 다음 분을 위해 감사를 드리며 본란에 게재합니다.
① 브라질에서 김성국집사
② 미국에서 김광천장로, 문봉계권사, 박우금집사
③ 일본에서 유병세선교사
또한 중국대륙을 위한 선교헌금을 위해 본교회의 다음 분들이 헌금해 주셨습니다.
① 유감순권사 ② 이재용권사 ③ 박영엽집사
④ 전인화집사 ⑤ 신현창집사 ⑥ 박병은집사
⑦ 김광남씨 ⑧ 김인숙씨 ⑨ 김정미씨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년말 업무처리 요령

1. 수료자와 이수자

1) 수료자 : 해당부에서 전과정을 마치고 상급부서로 진학하는 자를 말한다. 이중 수료자는 각 부 전과정의 1/2 이상 출석자중 최종학년 2/3 이상(36주) 출석한 자로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한자를 말한다.

2) 이수자 : 이수자는 수료자격 미급자로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한자를 말한다. (주교교칙 제 7 장 22조에 따름)

2. 12월의 수료와 진급

1) 첫째주(12월 2 일)

가) 주교 행사 - 처과장 회의

나) 교무처 업무 - 제적처리종료

다) 각과장, 담임업무 - 제적처리 출석부 정리확인

2) 둘째주(12월 9 일)

가) 주교행사 - 4 학기시험, 과별 회의

나) 교무처 업무 - 종합성적집계, 수료자, 진급자 명단확정.

다) 각과장, 담임업무 - 종합성적 산정, 교적부정리

3) 세째주(12월16일)

가) 주교행정 - 졸업사정회

나) 교무처업무 - 종합성적 집계, 수료자, 진급자 명단확정

4) 네째주(12월23일)

가) 교무처 업무 - 수료·진급준비 (시상, 순서, 진행, 반편성)

5) 주교행사다섯째주(12월30일)

가) 주교행사 - 수료·진급식

** 졸업기념 촬영은 11월·12월 중에 실시한다. ***

3. 연말종합시상

연말종합시상은 아래와 같이 통일한다.

— 아 래 —

1) 개근상 : 1 년간 개근한자

2) 점근상 : 1 년간 결석이 1 회인자

3) 최우수상(1 명) : 각 학년에

서 종합성적이 최고로 우수한자.

4) 우수상(2 명) : 각 학년에서 종합성적이 2. 3 위인자.

5) 장려상(3 명) : 각 학년에서 종합성적이 4.5. 6 위인자.

4. 기 타

상기 원칙에 따라 주교 각부의 특성과 사정에 알맞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도서실 특강

도서실에서는 오는 12월 9 일 오후 3 시30분에 청년부실에서 특강을 갖는다. 특강은 송신대 교수이며, 도서관장인 박형용박사가 「성경의 언어적 성격」이란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또한 독후감 모집도 하고 있다.

교사·학생 출석동향

● 교사

10월의 교사 출석률은 94%로서 8월과 같은 것이었고 9월 보다는 1% 향상된 것이었다.

교사의 재적수는 10월말 현재 488명으로 올들어 최고의 수로서 1월의 445명 보다 무려 43명이 증가된 것인데 현재의 학생 총 출석 수에 비해 교사의 재적 적정수를 교칙에 따라 산출해 보면 460명 선으로 되어 있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학생 재적수에 따라 산출할 경우는 500 여명으로

앞으로 학생수가 크게 증가되지 않는 한 사실상 더 이상의 교사 수를 늘리는 문제는 고려할 점이 있는것 같다.

● 학생

10월의 학생 출석률은 64%로서 9월의 68%보다도 오히려 저조한 형편이다.

이는 9월 이후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증가를 보이는 연례적인 일반경향과는 아주 상반된 것으로 이례적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생 출석률의 산출을 재적수에 따라 산출하기 때

문에 장기결석생을 연말이 가까워옴에 따라 수요와 준비를 겹쳐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출석률이 크게 좌우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볼 때 출석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대학부(42%)와 산업전도교육부(44%)는 대학부가 재적 280명에 출석이 118명, 산업전도교육부가 재적 200명에 87명 출석으로 장기결석생 정리가 미처 마무리 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무튼 출석이 저조한 경우 결석생에 대한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정리함이 좋을 것 같다.

새해 교회 임역원 임명

— 1980년 한 해를 이끌 각 기관장 및 주교부장 —

당회는 1980년도 한 해를 이끌고 나아 갈 당회 산하 각 기관의 기관장 및 주일학교 각부부장을 임명했다. 내년도 부터 교회조직기구가 전면 개편됨으로 어느 해보다 각 기관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게 되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각부 주교부장이 집사로 임명된 것이 금번의 특징이다.

당회는 신년도의 제직·구역권찰·교사·성가대원의 임명을 11월25일 주일부터 매주일 실시할 것이다. 새로이 임명된 1980년 임역원은 다음과 같다.

1. 당회/ 당회장: 김 창인 목사

서기: 송순일 장로 부서기: 이태규장로

2. 당회장 비서실/ 실장: 윤형철목사

총무: 이 손전도사

3. 예배위원회/ 위원장: 김창인목사

4. 전도위원회/ 위원장: 김종택목사

5.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상우목사

6. 심방위원회/ 위원장: 이성봉목사

7. 재정위원회/ 위원장: 윤종성장로

8. 건축위원회/ 위원장: 김기정장로

9. 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 황기성장로

10. 인사위원/ 수석위원: 송순일장로

11. 감사위원/ 수석위원: 윤종순장로

12. 사무국/ 국장: 최석주장로

13. 출판국/ 국장: 조현명장로

14. 제직회

회 장: 김창인목사

서 기: 오진국집사 회 계: 최성림집사

사무부장: 위영환장로 영선부장: 이원철장로

예전부장: 전희문장로 구제부장: 김방진장로

봉사부장: 이희원권사 미화부장: 박옥식권사

15. 주일학교

① 어린이 새신자부

지도: 안석렬전도사 부지도: 김은숙전도사

부장: 정운석집사 부감: 장병기·명정옥집사

② 영아부

지도: 정소영전도사 부지도: 이우신전도사

부장: 이승철집사 부 감: 김종구·배옥인 집사

③ 유치부

지도: 정연희전도사

부장: 최상규집사 부 감: 이성원집사·이희수권사

④ 유년부

지도: 이양우전도사 부지도: 김장근전도사

부장: 강은원집사 부 감: 최무길집사

⑤ 초등부

지도: 김석원강도사 부지도: 김양래·이상원전도사

부장: 김영근집사 부 감: 한현일·양승희집사

⑥ 중등부

지도: 남성호강도사 부지도: 김정훈·김순옥 전도사

부장: 박승준집사 부 감: 오정현·문옥순 집사

⑦ 고등부

지도: 부지도: 성주진·김신성 전도사

부장: 김광신집사 부 감: 오해창·공향조 집사

⑧ 대학부

지도: 윤형철목사 부지도: 김남수·김경성 전도사

부장: 윤인현집사 부감: 김보일집사·김상순권사

⑨ 청년부

지도: 이승근목사 부지도: 김연이전도사

부장: 박재용집사 부감: 송기홍집사·손명순권사

⑩ 장년새신자부

지도: 이성봉목사 부지도: 구명신 정금숙전도사

부장: 문홍구집사 부감: 박인세집사·이명자권사

⑪ 장년부

지도: 김종택목사

부장: 이영세집사 부감: 최대원집사·김상권권사

⑫ 노년부

지도: 김재창목사 부지도: 박현모전도사

부장: 강모용집사 부감: 엄필성집사·김정옥권사

⑬ 산업전도 교육부

지도: 유재일강도사 부지도: 김순애·현정남전도사

부장: 최성현집사 부감: 조성행 집사·황숙영권사

⑭ 선교부

지도: 김영휘전도사 부지도: 조준상·유국남전도사

부장: 남선우집사 부감: 신동수집사·안윤진권사

⑮ 새가정부

지도: 윤영탁목사

부장: 박성수집사 부감: 조인세집사·안인현권사

장로 6명 피택

이창업 · 김원선 · 오진국 · 박치민 · 정하우 · 이병학

교회는 10월28일 공동회의를 열고 장로 7인을 뽑는 투표를 했다. 이날 1, 2, 3, 4 부에 투표자는 2040표로써 당선권인 2/3

이상 투표는 1360표인데 이날 1, 2, 3, 4 부 예배시에 당선권에 드는 사람이 없이 저녁예배에 다시 투표, 이창업 · 김원선 · 오진국

박치민 · 정하우 · 이병학 집사가 피택되었다.



이창업

1918. 3. 1

재정위원



김원선

1930. 2. 12

구역권찰회서기



오진국

1936. 12. 25

제직회서기



박치민

1937. 6. 7

유치부부감



정하우

1939. 12. 23

영아부부감



이병학

1943. 5. 8

건축위원회회계

파라과이에 김재창목사 파송



당회는 남미의 파라과이에 본 교회 부목사 김재창목사 (구역권찰회 회장)를 파송키로 결정했다.

미니버스 기증

교회는 육군 〇〇〇부대의 군목으로 수교하는 김수성목사에게 미니버스 1대를 기증했다.

이는 군중활동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하여 요청을 받고 허락한 것이다. 군목 김성수목사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 산업교육도교육부 부지도로 수교하시다가 군목으로 지원 입대하셨다.

이는 금번 당회장 해외여행시 파라과이에서 교역자 초청을 받고 결정한 일이다. 이로써 우리 교회는 지난달의 이준교목사, 엘리자 겔간전도사에 이어 14번째의 선교사가 남미로 나가게 된 것이다. 김재창목사는 수속이 끝나는대로 가족과 함께 임지로 출발할 예정이다. 가족은 사모와 1남 3녀가 있다.



〈버스 기증식〉

내년도 제직

1100명으로

당회는 내년도 제직을 1100명선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시무권사를 260명 (50명 증원), 남자 서리집사를 260명 (30명 증원), 여자 서리집사를 580명 (80명 증원)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헌직에서 은퇴한 자가 아니라도 그의 신앙과 연조를 참작하여 명예 권사, 명예 집사직을 주기로 가결했다.

내년도 제직은 11월25일 3부 예배시 임명하게 된다.

윤형철 목사를

월간총현 주간으로

당회는 이준교목사의 이집트선교사 파송으로 공석이 된 월간총현의 주간에 현 당회장비서며 대학부 지도교역자인 윤형철목사를 임명했다.

김창언목사 인도로

제 2 회 조찬기도회

민족의 산업사회 복음화를 목표로 하여 창설된 산업전도회는 지난 11월 1 일 조찬기도회를 갖고 교회내의 산업인들의 관심과 산업전도인구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전도회 섭외부장 신동수집사의 사회와 정상우목사의 설교, 회장 이원철장로의 인사와 기도, 민족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김의철장로가 북한선교와 해외선교를 위하여 한경일장로가, 성전건축을 위하여 김기정장로가, 충현 식구의 사업을 위하여 최석주장로가 산업사회 복음화와 교육부를 위하여 오태희장로가 각각 기도하는 순서를 가지고 진행했다.

산업전도회는 제 2 회 조찬기도회를 오는 12월 1 일(토) 유년부실에서 당회장 김창언목사를 모

시고 열릴 예정이다. 많은 실업인과 뜻있는 교우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비서실 강화

비서실장에 윤형철목사

당회는 당회장 비서실을 강화하여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강화하기로 하고 윤형철목사를 비서실장으로, 이춘전도사를 총무로 하는 강화안을 가결하고 추가로 간사 1 명을 인선하여 채용키로 정했다.

평신도를 위한 특강

지난 11월 12, 13일에

성경학원이 주관하는 평신도를 위한 특강이 지난 11월 12, 13일 유년부실에서 있었다.

이는 평신도들이 오해하기 쉽고 잘못되어 있는 신앙의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이번 특강은 이종윤목사(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교수·충현성경학원 강사)가 강사로 수고하였는데 첫째날은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둘째날은 「방언문제와 성령의 은사」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폐백금지키로

교회내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교회내에서 폐백드리는 일은 금하기로 당회는 결정했다.

각 종 통 계

1979. 10. 7 (매월첫주기준)

충현기도원 안내

(교 통 편)

1. 교회버스편
 - 매주일 저녁예배 후
 - 매주수요일 저녁 예배 후 교회앞에서 출발합니다.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천·여주방면 완행버스를(20분간격) 타고 초월면사무소 앞에서 하차하면 됩니다.

(주 소)

130-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 화)

교환 101번을 거쳐서「경기도 광주 초월14」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		분	남	여	계	총세대수 3,284		
예배 집	주일날	I 부	187	361	548	교인 총수	남	3,079
		II 부	413	953	1,366		여	4,503
		III 부	382	672	1,054		계	7,582
		IV 부	172	451	623			
	주일저녁	주일저녁	279	390	669	신앙 입교	남	1,775
		삼일저녁	109	328	437		여	3,113
		어린이새신자부	15	26	41		계	4,888
		영아부	127		235			
	유년부	유치부	147	134	281	유아 세례	남	473
		유년부	188	183	371		여	379
		초등부	198	184	382		계	852
		장년새신자부	19	63	82			
	청소년	중등부	137	141	278	신앙 입교	남	270
		고등부	148	128	274		여	303
		대학부	53	64	117		계	573
		청년부	78	102	180			
회교	장년부	장년부	18	265	283	원입 교인	남	561
		노년부	36	101	137		여	708
		산업교육부	16	44	60		계	1,269
		선교부	14	65	79			
	새가정부	새가정부	13	15	28			
		계	2,749	4,778	7,527			

11월의 행사



- 1 - 3 일 중국대륙 선교의 밤 (강사: 홍종만 선교사)
- 4 일 정기제직회
남전도회 · 여전도회 · 권사회 임원회
재정위원회 월례회
- 9 일 철야기도회 (유년부실)
- 11일 중등부 헌신예배
남전도회 · 권사회 월례회
- 14일 여전도회 철야기도회
- 18일 추수감사절
여전도회 · 재정위원회 월례회
해외복음선교회 실행위원회
- 21일 철야기도회
- 25일 고등부 헌신예배
구역권찰회 · 전도위원회 월례회
1980년도 제직임명
- 26일 건축위원회 월례회
- 30일 정기당회

편집하고 나서

* ... 홍종만 목사님이 오셔서 중국대륙선교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더욱 구체화 시켜 놓았다. 그것은 항상 이론과 연구로만 끝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중국대륙의 선교가 이제 행동으로 옮겨 적야 하는 그 시기가 온 것이다.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북한선교와 직결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대륙선교의 밤」 마지막날 강의를 그대로 옮겨 보았다. 중국대륙을 위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 있으면 한다.

* ...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추수감사절의 원래적인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 보고 감사절을 맞으며 각자가 생각하는 감사절을 알아보고 공감의 벽을 쌓아 보고자 했다.

* ... 이제 1979년도 이제 한달 남았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다는 언제나 연말이 오면 이야기 하는 이 이야기가 무척 실감나게 느껴는 1970년대의 마지막해 였다.

각자가 조용한 시간을 갖고 금년을 마무리 지으며 오는 해를 맞아야 할 것이다. 교회내의 모든 부서가 새해 준비로 바쁘다. 모든 일들이 계획성 있고 책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1979년 월간총현 조직*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조현명 지도 / 장상우
서기 · 회계 / 이형수

편집위원 / 장상우 이준교 윤형철

조신근 김차생 박성수 손경수

오타용 이사래

주간 / 윤형철 편집국장 / 이형수

간사 / 오타용

월 간 총 현

11월호

제 7 권 통권 제 71 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9년 11월 25일 발행

발행인 / 김 창 인
편집인 / 조 현 명
주간 / 윤 형 철
편집국장 / 이 형 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36

267-9937 · 9738



주일성수의 올바른 태도는?

기쁘고 거룩하게 지켜야

물음 / 요즈음 보게 되면 크리스찬들의 주일성수에 관한 문제를 매우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앞의 구멍가게나 장사꾼들에게 주일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먹을 것을 사먹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성수의 올바른 태도인지요?

이는 결코 주일학교 학생에 국한된 문제 '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하고 유감스러운 것은, 현대 한국교회 기성교인들의 주일 성수에 대한 해이한 사상입니다. 주일 성수는 예배시간에나 해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배식 행위를 예사로이 할 뿐만 아니라 예배시간을 전후하여 다방이나 음식점을 출입하는 일과 시장이나 백화점에 들러서 필요한 물건 사는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는 비신앙적인 어른들이 없는 지 걱정스럽습니다. 혹 말하기를 다른 교회 교인들은 주일에도 잘 사 먹더라는 식의 책임 전가와 자기 변명을 하려는 이들도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만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표준이며 주일 성수의 원칙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의 사정에 의한 단속보다는 각자가 성경과 신앙 양심에 비추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올바른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하여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주일은 글자 그대로 주님의 날이지 내 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 12:8) 주일은 결코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풀려 난 해방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주일은 엄격히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행동이 따르는 실생활로 온 종일도록 기쁘시게 하는 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일은 가장 즐거운 명절의식을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 기념하는 대명절입니다. (창 2:1-3)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기쁜 명절이기

때문에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 5:15, 요 8:36) 이 영광스런 대명절을 기억하여 바로 지키는 일이야말로 사람으로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미국의 조상 청교도들은 주일을 거룩한 명절로 알고 지켰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미리 주일을 준비하되 토요일에 먼저 기도로 마음을 성결케 하고 목욕과 이발을 해서 몸을 깨끗이 준비하였으며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은 물론 심지어 아이들의 간식까지도 다 준비하고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했고 또 거룩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육간에 큰 축복을 받아 세계 제일의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신 28:1-4)

세째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복을 받는 일이며 그렇지 않을 때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일을 깨끗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생활이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현신의 생활이며, 자기 자신에게도 영육간에 부요의 복이 넘치는 일입니다. (창 2:3; 출 20:8-11; 사 58:13-14)

네째로 자라나는 자손들을 실족치 않게 하고 순진한 학생들에게는 좋은 본이 되며 하나님께 영원한 천국 안식에 들어가는 증표(히 4:9-11)이며, 소망이 넘치는 생활입니다.

끝으로 교회 헌법적 규칙 4조 5항에는 "주일에 음식을 사 먹거나 모든 매대하는 일을 하지 말며 연회나 세속적 쾌락을 삼가며 힘써 전도·위문·기도·성경과 종교 서적 열람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세속적인 생각이나 방법으로 편리하게 주일을 지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김 재 창 목사 <본교회부목사·구역권찰회장>

실로암
못가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시편 136편 중에서〉